



[코로나19] 대구 생각하면 울컥 출항 기업인 출연 이어져 02



Economy

코스피	↑	2059.33 (+45.18)	코스닥	↑	641.73 (+14.91)
금리 (연이자율)	↓	1.03 (-0.08)	환율 (원/달러)	↓	1187.80 (-7.40) (4일)

코로나 '슈퍼 추경'

역대최대 11.7조원 내수침체 응급처방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역대 최대 적자국채 10.3조 발행 등 조달 피해 최소화, 경제 버팀목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극복에 필요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였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 대응 차원에서 4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극복에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은 세출 부문만 놓고 봐도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2조4000억원) ▲민생·고용 안정(3조원)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는 지난해 경기 둔화와 세계 지원 등에 따른 세입 부족 예산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 규모가 6조2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난해 남은 결산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각각 7000억원과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발

행 규모는 10조3000억 원이다. 추경 편성에 적자 국채를 발행한 규모 역시 2009년 15조8000억원 이후 2013년(15조7000억원), 1998년 2차 추경(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코로나 추경 편성 상세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코로나 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대구 코로나 확진자 4000명 넘어

국내 총 확진자 5600명 돌파 서울 1명 추가돼 100명 육박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5621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확진자 51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5328명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29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진자가 562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12시 기준, 대구 지역에서 40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경북 지역에서도 89명의 확진

자가 발생, 확진자는 774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99명으로 집계됐고, 경기 지역은 7명이 추가되면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수도 5명 늘어, 이제 까지 33명이 코로나 19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칠곡경북대병원 음압격리병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7세 여성이 숨졌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 여성은 특별한 기저 질환(지병)이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위중'한 상태 25명을 포함해 '중증' 이상인 환자가 총 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세경 기자

사스·메르스 항체서 코로나 백신 실마리

CEVI 융합연구단 코로나 스파이크 결합항체 예측 치료용 항체·백신개발 활용 기대

국내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 항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원)은 CEVI(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은 기존에 알려진 사스 중화항체 2개와 메르스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했다고 4일 밝혔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할 때 활용되는 단백질이다. 연구진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예측한 것이다. 항체는 인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반

응이 만든 일종의 무기다.

CEVI 융합연구단은 코로나19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했고, 기존의 사스와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에 결합할 수 있는지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해 예측했다. 그 결과, 기존의 사스 중화항체 2개, 메르스 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이를 생물학 분야 아카이브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지난달 23일 투고했고, 'bioRxiv'는 2월 27일 이를 공개했다.

또 CEVI 융합연구단은 2월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주를 분양받아 한국화학연구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 신속한 배양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확보했다.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공개된 코로나19바이러스 검출용 프라이머·프로브 세트(유전자 진단 기술)의 민감도를 비교했다. 프라이머는 특정 유전자 합성의 시작점이 되는 짧은 유전자 서열이고, 프로브는 특정 유전자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판독할 수 있는 형광이 표시된 짧은 유전자 서열이다.

그 결과, 동일 조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N 유전자 검출용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의 프라이머·프로브 세트가 민감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RdRp/Orf1 유전자 검출용은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ORF1ab 프라이머·프로브 세트가 민감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검출용 주요 프라이머·프로브 세트의 민감도를 비교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다 민감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의 분자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기자 seilee@



"지하철 손잡이 조심하세요" 4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한 시민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있다. /연합뉴스

美 깜짝 금리인하에 코스피 2%대 급등

외인 1530억 기관 1695억 순매수 시총 상위 종목 1~2% 급등 성공 삼성전자, 전일보다 3.61% 올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습적인 금리인하 소식에 국내 증시가 크게 올랐다. 3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지수들이 모두 하락한 반면 코스피는 그간 빠졌던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며 급등에 성공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18포인트(2.24%) 오른 2059.33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 변화가 눈에 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강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가 포지션을 전환했다. 외국인이 1530억원, 기관이 169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1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은 41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평균 1~2%



4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 딜러들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18포인트(2.24%) 상승한 2,059.33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이날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14.91포인트(2.38%) 상승한 641.73에 장을 마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인하가 달러화 약세, 원화와 위안화 강세를 불러왔다"면서 "그간 우리 증시는 제대로 된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효재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 약세와 정치적 리스크 완화 등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5.2원)보다 7.4원 내린 1187.8원에 마감했다. 미 연준은 전날(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0%포인트 긴급 인하했다.

/송태희기자 alvin@